

기본급 142,300원 인상!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
지부 재정자립기금 현실화!



지부교섭 속보

2호

2022.04.22(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올해 요구안 무리한 것 없다!



2차 교섭, 요구안 취지 설명

4월 21일(목) 15시 보쉬 사내회의실에서 2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이 날 교섭은 지부 요구안 취지를 설명하고 마무리됐다. 박종우 지부장은 “요구안이 몇 개 되지 않는데도, 사측 교섭위원은 1차 교섭 때부터 쉽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원활하게 교섭하자.”고 당부했다.

이다. 위험성평가도 이미 2015년에 노사 공동실시에 합의했다. 올해는 몇가지 세부 내용을 갱신하자는 것 뿐이다. 퇴직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 수당은 기존에 지급하던 관례대로 하자는 요구이다. 지부 재정자립기금도 현재 시행 중인 것을 각 사별로 동일하게 통일하는 내용이다. 사측이 어려워할 요구안이 없다.

요구안은 간단하다!

올해 지부교섭에서는 통일요구안 (산업전환대응, 위험성평가)과 지부요구안 (임금인상, 퇴직년도 연차수당, 재정자립기금)을 다룬다. 산업전환대응은 작년 합의내용에 한가지만 추가한 것이다.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때 노사 합의로 하자는 것

지부 교섭위원 매주(목) 공동 실천

한편 지부 교섭위원들은 매주 지부교섭이 열리는 목요일에 공동실천을 벌이고 있다. 사업장 현장 순회, 선전전을 비롯해 중요한 실천투쟁을 매주 함께 벌여나간다. 이 날은 지부교섭이 열리는 보쉬에서 중식선전전을 진행했다.

<매주(목) 교섭위원 공동실천 활동> 4/21(목) 보쉬 중식선전전



2차 교섭 속기록

요구안이 많지 않아도 쉽지 않다고?

사 : 오늘 날씨가 화창하다. 벌써 여름 오는 것 같다. 오늘 교섭 잘 됐으면 좋겠다.

노 : 코로나로 모든 사업장이 전환기인 것 같다. 소비자물가도 최고치를 찍었다. 노동자들이 많이 고통 느끼고 있다. 1차 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이 몇 개 안되는 요구안인데 쉽지 않겠다고 하셨다. 작년에 합의한 내용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라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1차 교섭 때부터 쉽지 않을 거라고 표현하는 게 좀 걸린다. 오늘 요구안 설명하겠다.

지부 요구안도 크게 무리한 요구안이 없다. 금속노조가 2022년 요구하는 항목은 크게 4가지이다. 통일요구안, 중앙교섭 요구안, 지부교섭 요구안, 사업장 필수요구안. 통일요구안은 작년, 제작년처럼 지부교섭에서 다루려고 한다. 중앙교섭, 사업장 필수 요구안은 각 지회 보충교섭에서 다루면 된다. 통일 요구안은 크게 2가지이다. 산업전환대응, 위험성평가이다. 산업전환대응은 5번항을 추가 갱신하는 것이다. 산업전환이 우리 생각보다 가속화되고 자동차 업종은 체감도가 크다. 다른 업종도 산업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각 지방정부도 관련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산업전환 대응을 노사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원제도를 어떻게 활용할건지도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는 아주 간단한 요구이다. 두 번째는 위험성평가이다. 2015년에 지부교섭에서 합의한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매년 진행하고 노사 동수로 참여해서 진행

하기로 합의했다. 거기에 조금 세부적으로 내용을 추가했다. 조합측 위원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 포함해서 갱신하자는 것이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회사가 처벌받는 것은 노조도 전혀 원치 않는다. 위험성 평가를 공동으로 철저히 진행하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

임금인상 요구안은 지부교섭에서 다룬다. 142,300원 인상을 요구한다. 이후에 노조 차원에서 각 사별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드리면 지회별로 논의하시면 된다. 퇴직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 청구권 보장은 정년 마지막 해에 근무하면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하라는 것이다. 작년 대법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했는데, 그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하던 관례 존중해서 계속 지급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은 재정자립기금이다. 2017년에 재정자립기금을 당시 지부교섭 사업장 6개사가 총액 750만원을 분담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조합원 수 비율로 낸 걸로 안다. 최근에 지부교섭 사업장이 늘었는데, 노조는 750만원은 6개사 합의사항이고 추가된 회사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750만원을 고정하고 참여 회사들이 분담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대각선교섭 사업장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자립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각 사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모두 1인당 5천원으로 정리하자는 것이다.